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합성산 토종 홍화씨기 배 품종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년간의 재배를 통한
임조귀 품체
● 품질은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해바라기 꽃안에 동자가 눈을 그림그린한 얼굴로 웃고 있다. 재(財)와 비(悲)를 표현했다

수안스님
그림이야기



◊'이 몸으로 씬을 만들어 입에게 올리고자...' '일'은 부처님의 동시에 중생이며, 모든 아득이다.

詩·禪·부처님말씀 그리고 大願이...

소나무의 파릇한 솔잎이 모두 12개, 둥근 지붕 밑 창문살도 모두 12개의 칸으로 나뉘어져 있다. 바로 12연기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 기가 돈다. 제목의 그림속 풍어는 108마리. 해바라기 꽃 안에 동자가 순하게 웃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눈물이 그림그림, 눈을 열까지 선연하지만 천진한 웃음이 해맑기 그지없다. 동자의 천진한 얼굴에 재(財)와 비(悲)가 함께 형상화되어 있는 것. 선화(禪畵)로 유명한 수안스님(통도사 추서암)

이 21·27일 인사동 경인미술관 전시에서 자신의 그림에 대해 설명했다. 그것은 수행체행이고 심법이었다. 오랜 참선수행에서 흘러져 나온 수안스님의 그림에서는 맑은 기(氣)가 느껴진다. 선(線)과 색은 모두 4상채 해바라기 8경도 12연기 48대원 108 번뇌 등 부처님가르침에 입각하고 있으며 표현 하나하나가 자비심과 육바라미를 실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스님은 누구보다도 많은 불사 기금마련장과 불우이웃돕기 진사회를 열었다. 1979년 이래 이재민돕기 선곡전을 개최한 이래 부산 선암사중흥불사기금미련전, 중앙승가대 건립기금미련전, 불광사유치원 및 포교사교육센터건립기금미련전, 소년소녀가장돕기선화전 등등. 누군가 와서 어려움을 토로하면 더 생각해 보지도 않고 상투 그림을 쾌척하는 수안스님. 스님의 바램은 오로지 우리 모두 더불어 살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다.

...악필(提筆)로 주먹을 쥐듯 붓을 잡고, 기도에서 갈고 닦아진 마음을 한데 모아 부처님 법영의 환희로움속에서 탄생되는 수안스님의 그림에는 천진본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보는 사람들에게는 경화스러움과 행복감을 준다. 스님의 그림에는 '방글방글 웃고 있는 동자가 자주 등장한다. 그 동자는 발우를 들고 있다. 이 발우는 참된 행복을 도와주는 발우다. 빛나고 복되고 행복된 삶, 항상 새롭고 환희로운 삶. 스님의 그림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처님가르침에 따라 살면 된다는 말없는 법문을 하고 있다.

"은 세상 다 품안에" 날개를 활짝 펼쳐온 한, 가볍게 처켜든 맑(날개)로 온 세상을 다 품었다. 마음의 벽을 허물면 온 천지가 내 것인데 벽을 세우는 바람에 이만쯤밖에 못 가지다니.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이 세상의 주인도 되고, 우주도 내 품안에 넣을 수

고행 이겨낸 의지 담은 이국적 풍경속 수선화 초가집 둥그런 지붕은 한국인의 심성 담았다



◊기도로 걸고 뒤은 수행에서 나온 그림이 수안스님의 선화이다.



◊초가집 창살에 48대원을 담은 '流水無常' 절된 심성은 지팡이지 않아도 저절로 행차가 넘어 퍼져 주위를 환하게 한다.



◊삼천년만에 피는 꽃 우담바라가 활짝 폈네. 오랜 수행정진 끝에 깨달음의 꽃이 활짝 피었네.

함을 이겨내기 때문이 아닐까. 고난에서 얻은 성취가 더욱 귀하며 참된 수행을 거쳐야 참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사모곡" 어머니는 모든 이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다 부처님은 중생들의 자애로운 어머니로 중생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깨우쳐

어머니는 영원한 고향 부처님은 중생의 어머니 삼천년만에 피는 꽃 우담바라 활짝 폈네

이 없으니 작은 가슴 활짝거리며 나 어머니 품으로 가리라

"진수무항(眞水無常)" 사랑들의 심성은 자기가 태어난 산천을 달는다. 사는 길의 모습도 산천을 그대로 담는다. 한국의 하늘과 산과 계곡에 잘 어울리는 초가집 그 풍그런 지붕은 영락같이 한국인의 선한 심성을 담았다. 초가집에 달려있는 시원한 창과 창살이 모두 새겨 그 안에 사는 이들은 '반드시 상생을 이루었다'는 법질바꾸의 48대원처럼 지극한 일을 배우고 수행정진한다. 아무 뜻과 색이 없지만 울려만 여여하면 사도 가슴앓는 길을 가졌노라고. "중생구제(衆生卽覺)" 열음과 풀은 같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열음으로는 독욕이나 행려를 할 수 없지만 그것이 녹아 물이 되면 독욕도 할 수 있고 발레도 할 수 있다. 중생으로 있을 때는 무명에 갇혀 어둠속을 헤매지만 한순간 무명을 타파하면 부처가 되어 자유자재해진 다. 갈증이 등등 없었으면 자비는 나올 수가 없다. 열음이 물리듯 감정이 물리듯 자비가 나온다. "행복을 만드는 문수동자 보현동자" 문수는 지혜요, 보현은 행인(行誼)이다. 양쪽이 다 겸해야 이상적인 불자의 모습이다. 지혜와 행이 없는 불자의 삶은 아무리 잘도 열심히 다닌다 하더라도 빈 겁쟁이이다. 지혜와 행이 조화되지 못하면 행복이란 없다. "차나머기새" 여보게 빛, 차가 있네. 차 머금으면 심신이 맑아지고 세상 모든 일 즐겁게만 보인다네. 몸은 사바에 머물지만 마음이 속진에 머물수 있는가. 담담한 맛이 쉼의 묘미라네. 인간사 모두가 그러하듯. "공상" 이름으로 향을 만들어 입에게 공양하고자 이름으로 등불을 만들어 입에게 비치고자 이름으로 차를 만들어 입에게 마시고자 이름으로 꽃을 만들어 입에게 보이게 하라 이력속 가지 (slie@buddhapia.com)



현대불교 98년 기획 **돌부처를 찾습니다**

순창 안정리 미륵불 두광에 연화무늬 장식

■석불문화연구회 답사 10월 후형 장승축제가 열리는 순창을 찾았다. 산의 중심인 본자를 가차가 달리고 달린다. 동서남북 보이는 것은 산. 산 편이다. 기암절벽 사이사이에 형형색색의 나무들이 매달려 있고 굽이굽이 흐르는 맑은 냇물은 한쪽의 풍광을 연상케 한다. "미륵불이 어디있습니까" "돌로 만든 부처님 보셨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도 한결같이 모르겠다는 대답 뿐이다. 지리산과 연결된 회문산을 찾았다. 6·25 당시 팔치산의 본거지로 주민들이 이유없이 희생당한 민족현이 서린 곳이

오른손에 지물들고 있어 약사여래불로 추정 다. 전북 순창군 구립민 안정리에 있는 미륵불은 시냇가 드로에서 약간 떨어진 발한가운데 서 있다. 다들어지지 않는 기둥 4개에 사각물지붕을 하고 돌담을 두른 조그만 양철 보호각 안에 비스듬하게 서 있다. 석불의 키는 1m50cm 정도며 큼직한 육체에 소박하며 이목구비는 오랜세월 풍화작용으로 마모돼 있다. 목에는 삼도가 없으며 법의는 포복식

봉건의 옷과 소매깃이 아래로 늘어져 있다. 의문은 간단하게 처리했으며 크고 작은 돌무더기로 대좌를 이루었고 공배는 부처님 몸과 하나의 물에 새겨진 거신공배이다. 두광은 하나의 용가선으로 원을 이룬 다음 연화무늬로 장식했다. 답사에 참가한 석불문화연구회 유명철 사무국장은 "수인이 오른손과 왼손을 모두 수경으로 가슴이랫부분에 모으고 있는데 오른손에 지물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약사여래로 추정된다"며 "석불과 보호각의 모습이 이곳 주민들의 한이 서린 정서와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정리=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영동 여성보살 관대위에 화불로 보아 고려시대 관음보살상



충북 영동 반천마을의 여성보살(사진·문지 187호 보도)은 관대위에 화불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음보살상이다. 얼굴 및 머리광배는 호분을 칠해 화려하고 선명하다. 석불의 재질은 화강암으로 가사는 두껍게 처리한 통견양식을 갖추고 있으며 가슴을 [자형으로 깊이 드러내고 장식물의 흔적이 보인다. 불상의 미를 중요시하고 조각형태들이 매끄럽지 않고 인위적인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조성된 것이다. 특히 관음보살은 지방적인 특색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지방호족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관음보살상에서 원래는 사찰에 있었을 것이다. (한국교원대 박물관)



돌부처 찾기 제보 받습니다 (02)722-4162